

# 은행, 실적 잔치는 끝났다... 총당금·판관비發 ‘먹구름’

8개 은행 4분기 추정순이익 1.6조  
3분기비 반토막... 전년비 0.7%

추가총당금 적립→대손비용 증가  
이자이익 주춤하고 非이자이익 ↓

사상 최대 행진을 거듭하던 은행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졌다. 희망퇴직에 따른 판관비 등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16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기업은행·BNK금융·DGB금융·JB금융 등 8개 은행지주의 합산 추정순이익은 1조623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3조8440억원 대비 57.8% 급감한 수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0.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8개 은행지주의 순이익으로 2조2540억원 안팎을 예상했지만 1조원 중반선까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은행지주별 분기 순이익 추이 및 예상)

구분	17.4	18.1Q	18.2Q	18.3Q	18.4QE	(%,QoQ)	(%,YoY)	컨센서스	19.1Q
신한지주	211	858	938	848	384	-54.7	81.9	560	865
KB금융	554	968	947	954	396	-58.5	-28.5	593	930
하나금융	496	669	634	589	288	-51.1	-41.9	402	585
우리은행	134	590	716	598	195	-67.4	45.8	244	568
기업은행	256	510	422	520	261	-49.9	1.9	304	498
BMK금융	-83	207	150	182	-34	-	-	32	167
DGB금융	31	92	106	80	113	40.4	268.9	85	104
JB금융	14	64	74	73	20	-72.1	42.4	35	90
합계	1,612	3,958	3,987	3,844	1,623	-57.8	0.7	2,254	3,807

단위:십억원 /자료=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원인은 총당금과 판관비다.

전매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간실적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와 희망퇴직 영향으로 큰 폭의 판관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부실채권 상각규모 증가와 국제회계기준(IFRS)도 도입에 따른 추가총당금 적립으로 대손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으로 이자이익 증가는 둔화됐고,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금융상품판매 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KB금융이 4분기도 리딩뱅크 자리는 지키겠지만 예상보다 부진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확대된 은행 성과급 1900억원과 그룹 희망퇴직 비용 2040억원을 반영하면 4분기 순이익은 기존 추정치를 30% 이상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KB손보와 KB증권도 크게 부진한 업황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지주 역시 희망퇴직과 성과급이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며, 하나금융은 희망퇴직 비용 대신 인사시스템 통합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금융이 IFRS 9 영향에 따른 대손비용 상승과 부산은행 희망퇴직 확대로 2017년 4분기에 이어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총당금이 반영되는 곳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관련 은행들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우리 1100억원 ▲국민 1020억원 ▲하나 810억원 ▲부산 400억원 ▲신한 260억원 등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미 총당금 적립률이 98%에 달해 추가 부담이 거의 없지만

우리, 하나, 부산은행 등은 기존 총당금 적립률이 10~37%에 불과하다.

전 연구원은 “2017년 4분기 대규모 비용인식이 있었던 신한지주, 우리은행, JB금융과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따른 영업매수차익이 발생하는 DGB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순이익의 절대규모가 적어 지난해 4분기 업종합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4.2%에 그쳐 1~3분기 누적수치인 10.7%와 비교해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은행들 실적은 지난해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부동산 규제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은 둔화되는 반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이 순이자마진(NIM)을 크게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총당금이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를 감안하면 올해 은행들의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t@metroseoul.co.kr

## “황금돼지해 맞아 황금돼지 한돈 쏜다”

KEB하나은행 ‘황금福돼지 드림 지정’

KEB하나은행은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를 맞아 오는 2월 28일까지 ‘황금복(福)돼지 드림(Dream) 지정’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회원인 손님이 KEB하나은행을 외국환거래 은행으로 신규 지정 후 ▲개인송금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제재자 송금 등 건당 미화 1천불 이상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이벤트 대상이 돼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선착순 300명에게 5000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하나머니 Dream’, 추첨을 통해 10명의 손님에게 황금福



돼지 한 돈을 증정하는 ‘황금福돼지 Dream’, 5월 말까지 3회 이상 해외송금 손님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 2개씩을 제공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Dream’ 등 크게 3가지 이벤트로 진행되며 중복 당첨도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kmh@

## 신한銀, 서울 소재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16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150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225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 신규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에 출연했던 50억원과 비교해 출연 금액을 크게 늘렸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용해 지원되는 이번 특별 운전자금 대출은 서울시 소재 8000여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감면, 보증 한도 우대 등 혜택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운전자금 대출 금리는 최저 연 2% 초반 수준이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은행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안상미 기자

## 한화생명 병원비·채무상환 처리 ‘유족사랑 신탁’ 출시

한화생명은 16일 고객 사망 시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

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하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희주 기자

(손해보험 5사 당기순이익 전망)

단위:십억원·%

구분	4Q17	3Q18	4Q18E				2018E		2019E		
			예상치	y-y	q-q	컨센서스	과리율	예상치	컨센서스	예상치	컨센서스
삼성화재	39	237	96.0	+148.3%	-59.5%	123	-22.1%	999	1,032	897	1,049
DB손해보험	97	152	54.8	-43.4%	-63.8%	102	-46.4%	507	560	572	625
현대해상	67	101	34.2	-48.8%	-66.1%	61	-44.0%	392	433	464	486
메리츠화재	58	73	47.8	-18.1%	-34.5%	50	-4.4%	253	259	310	300
한화손해보험	13	34	-0.5	적전	적전	8	하회	115	128	147	150
합계	273	596	232.2	-15.0%	-61.1%	345	-32.7%	2,265	2,413	2,390	2,611

/자료=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보험업계도 4분기 실적 먹구름 예상 손보 자보료 ‘숨통’... 생보는 ‘안갯속’

(자동차보험료)

손보, 車보험료 인상으로 ‘반등’  
생보, 변액보증 손익 악화 ‘암운’

올해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해보험사는 하반기부터 보험료 인상 효과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생명보험사는 뚜렷한 반등요인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생명·손해보험 7사의 합산 순이익은 551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컨센서스 대비 생보는 8.2%, 손보는 38.2%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예상보다 높아진 차보험 손해율과 보험영업 이익 및 변액보증손익 동반 악화가 실적을 끌어내렸다”며 “손보업계의 경우 정비수가 인상분 반영과 보험료 인상 경감 효과, 생보업계는 미진한 위험손해율 개선, 낮은 위험보험료 성장률이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등에 따라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4분기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 등 5개사의 순이익(2322억원)이 컨센서스를 32.7%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손보5개사의 순이익은 229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과 영업일수(5일) 증가가 주요인이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손보사 5곳의 4분기 손해율은 95.4%로 전년 동기보다 9.1%포인트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도 차보험 손해율은 93.8%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된 2011년 이후 역대 최악의 손해율이다.

차보험 손해율의 악화는 차보험료 인가와 정비수가 인상, 사고 건당 청구액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상반기까지 손보사 실적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부진할 전망”이라며 “올 상반기에도 정비수가 잔여분 인상, 최저임금 인상 중고차 보상 확대 등으로 손해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등의 기회는 있다.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날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실적개선과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지 주목된다. 현대해상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3.9% 인상한다. DB손해보험은 3.5%, 메리츠화재 4.4%, 삼성화재 3%를 각각 올린다. 비상장사인 KB손해보험은 3.5%로 올린다.

정준섭 연구원은 “하반기부터는 위험손해율 개선, 사업비율 하락과 더불어 1월 인상한 자동차 보험료 효과로 뚜렷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며 “만약 올해 상반기 추가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성공한다면 손해율의 전년 대비 개선 효과는 2020년에 연중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삼성생명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삼성·한화·동양·미래에셋생명 등 4개사의 순이익은 24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되지만 컨센서스를 26.4%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렌지라이프를 포함한 5개사의 순이익이 300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손해율 상승(+6.9%)과 사업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으나 일회성 매각 및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일부 환입 등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생보 2개사의 순이익(3295억원)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국내의 부동산 매각이익(+1700억원)과 삼성전자 지분 배당수익(+1800억원), 삼성자동차 관련 환입(+260억원) 등 비이자수익에 힘입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와 달리 생보업계는 반등요인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오진원 연구원은 “보험영업이익 정체와 증시 악화 및 장기 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 손익 악화가 생보업계 실적 향상을 견인할 것”이라며 “올해도 장기금리 하락과 증시 변동성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변액보증손익에 대한 보수적 가정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생보사들은 4분기부터 시작된 시중금리 하락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도 어려운 금융환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